송순의 〈면앙정가〉에 나타난 장소성과 그 의미

고성혜*

‖ 차 례 ‖

Ⅰ. 들어가며
Ⅱ. 송순의 코스모스
Ⅲ. <면앙정가>와 토포필리아
Ⅳ. 장소의 경계와 의미: 담양과 면앙정
Ⅴ. 나가며

【국문초록】

이 글은 장소성에 초점을 맞춘 대개의 작품론이 특정 장소가 지니는 일반적인 의미나 의의들을 부여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장소와 장소의 접점 혹은 장소 안의 장소(대상)가 개별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출발했다. 따라서 이 글은 송순의 <면앙정가>를 대상으로 장소성이 실제 텍스트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직되고 있는지 밝히고자 했다.

먼저 송순에게 자연은 이상향, 즉 코스모스임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면앙정가>에 나타난 토포필리아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장소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구체적 지명과 장소를 구상(具象)화 시키는 표현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더불어 장소를 지속시키려는 바람이 순환적 시간관념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점 역시 살폈다. 마지막으로 담양과 면앙정이라는 장소의 유기적인 관계망과, 작품과 장소가 형성하는 심미적 자질과 그 관계망에 대하여 논의했다.

주제어 : 가사, 송순, <면앙정가>, 면앙정, 담양, 지역문학, 장소성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Ⅰ. 들어가며

조선시대 시가들을 보면 대체로 자연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많다. 조선의 통치 이념이었던 유교 사상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각 작품들을 살펴보면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소 차이가 있다. 이는 작가들의 독특한 내적 경험에서 기인하는 필연적인 사태이다.

경험은 인간의 인식과 관념에 일정한 틀과 형식을 부여한다. 인간은 특정 대상을 접하면서 사랑이나 증오와 같은 감정을 느끼는데, 그러한 감정은 경험 주체가 대상에 대해 갖게 되는 주관적이고 의도적인 특성이다. 따라서 경험은 인식 주체가 내적으로 어떻게 대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지를 드러내주기도 한다.[1] 간단히 말해, 인간에게 경험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에는 의도와 감정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처음에 사람은 무차별적인 공간에 놓이게 되지만 점진적으로 거기에 일정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 그럼으로써 공간은 비로소 장소가 된다.[2] 이러한 전제로부터 경험이라는 핵심어가 '지역'(혹은 '공간')이라는 주제와 맞물릴 때에 우리는 '장소'(혹은 '장소성')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특정한 공간에서 형성된 경험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그러한 영향 아래 이루어지는 행위는 특정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는 연쇄 작용이 일어난다는 논의가 가능하다. 지역이란 당대의 역사와 사회를 반영하고, 아울러 인간의 정체성이 특정 장소와 연관되어 있다는[3] 주장 역시 같은 맥락이다.

기본적으로 보는 행위란 선별적이며 창조적인 과정이다. 보는 행위를 통

---

1) 이-푸 투안, 구동회・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대윤, 1995, pp.23-24.
2) 이-푸 투안, 구동회・심승희 역, 같은 책, pp.19-20.
3) 제프 말파스, 김지혜 역, 『장소와 경험』, 에코리브르, 2014, p.15.

해서 환경(Umwelt)은 유기체에 의미 있는 기호를 제공하는 유동적인 구조로 조직된다.[4] 특히 필자는 이러한 환경과 환경이 주는 자극들이 의미 있는 기호로 조직돼 구조화된 문학작품에 주목할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구조화 과정이 작품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떠한 관계 맺음을 통해 의미가 발생하는지 고찰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호남 시가 문학의 중심에 위치하며, 아울러 자연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면앙 송순(俛仰 宋純, 1493~1582)의 <면앙정가(俛仰亭歌)>를 논하고자 한다.

송순은 <면앙정가>에서 면앙정 일대의 지명을 통해 담양이라는 특정 지역이 갖는 '장소성'을 구현한 바 있다. 물론 이점에 착안해서 송순의 전기적 삶과 작품을 대조 및 분석하여 작가의 장소적 인식과 의미에 대해 밝힌 연구도 이미 있다.[5] 그러나 장소성에 초점을 맞춘 대개의 논의들이 그렇듯 특정 장소가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의미나 의의들을 부여하는 데에 그치고 있고, 그러한 장소적 의미가 실제 텍스트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직되고 또는 심미적 자질을 드러내고 있는지는 효과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특히 장소와 장소의 접점 혹은 장소 안의 장소(대상)가 개별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들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망을 형성하며 끊임없이 서로 스미고 소통하는 특정한 경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소란 경험이 이루어지고 조직되는 공간이다. 이때 장소는 담양이 혹은 면앙정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그 크기와 작품 내에서 표현되는 집중도를 보자면, 면앙정은 담양이라는 장소 내에 있는 구체적인 대상이다. 여기서

4) 이-푸 투안, 구동회・심승희 역, 같은 책, p.26.
5) 김은희, 「송순 시가의 장소성에 대한 일고찰 -자연시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63, 한민족어문학회, 2013.

면앙정을 이루는 경계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담양이라는 장소의 경계는 동일한 지점을 이룬다.[6] 담양은 면앙정을 제약하는 곳이 아니라, 면앙정을 담양이라는 자연 안에서 보존하고 유지시킴으로써 또 다른 세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장소성에 좀 더 주목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송순이 인식한 공간 및 장소와 그를 바라보는 관점을 살펴보고 <면앙정가>와 담양이라는 장소가 형성하는 심미적 자질과 관계망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Ⅱ. 송순의 코스모스

송순은 누정을 문화 공간으로 삼아 문학 활동을 한 대표적 인물[7]이자, '강호가도의 선창자' 또는 '자연탄미의 시인'으로 불린다.[8] 따라서 자연을 배경으로 제작한 그의 작품은 오늘날에도 그 미적 가치와 예술적 성취를 인정받고 있다. 그렇다면 송순이 그렸던 자연은 무엇이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를 살피기에 앞서 우리는 그가 사림(士林)이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송순이 활동했던 16세기의 문학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사림이 주요한 작가층으로 대두하였다는 점이다. 작가로서 사림은 자연을 소재로 삼아 인간의 도덕적 심성을 작품 속에서 구현하고자 하였다. 즉 자연을 천인합일(天人合一)의 매개체로 인식하는 한편, 그 속에서 '참된 것[理]'을 추구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

6) 이와 같은 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에 기초한다.
7) 고성혜, 「담양가사의 미의식」,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p.23.
8) 김신중, 『은둔의 노래 실존의 미학』, 다지리, 2001, p.23.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시기 문학의 주 담당층을 이루었던 사대부들의 사상적 기반이 성리학적 사유 체계였다는 점이다. 그러한 사유 체계를 기반으로 그들이 끊임없이 언급했던 자연이 그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고에서 주목하는 16세기 후반은 사화와 당쟁의 후유증에 시달리던 시기로, 사화의 참상을 경험한 사림에게 자연은 무엇보다도 수신을 위한 은거지[9]로 이해되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들에게 자연은 공통적으로 세속(혹은 현실의 정치 세계)과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존재하였다. 당시 당장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던 훈구파와의 끊임없는 경쟁 구도는 사림에게 현실을 혼돈 그 자체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이 사화로 인하여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적어도 그들에게는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 정치에 염증을 느낀 이들에게 자연이란 그 자체로 어지러운 현실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이상향의 의미를 갖는다.

본고에서 살펴볼 <면앙정가>의 작가 송순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자. 기실 송순은 1519년(중종 14)부터 1569년(선조 2)에 이르기까지 약 50여 년 동안 관직 생활을 영위했다. 그러나 오랜 기간 관직을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 몇 번의 파직과 유배를 경험해야만 했다. 그렇다면 그가 인식했던 현실은 평안한 곳이었을까. 아니었을 것이다. 다음의 시를 통해 그의 현실에 대한 인식의 일단을 엿보기로 한다.

> 風霜이 섯거 친 날에 ᄀᆞᆺ피온 黃菊花를
> 金盆에 ᄀᆞ득 다마 玉堂에 보내오니

9) 김신중, 「사시가의 강호인식 -16세기 후반 사림파 작품의 두 경우-」, 『호남문화연구』 20,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1991, p.61.

桃李야 곳이온 양 마라 님의 뜻을 알괘라.[10]

위의 시는 바람과 서리가 뒤섞여 치는 매서운 계절 속에서 피어난 황국화와 따뜻한 봄에 피어나는 도리를 대조시키고 있다. 전통적으로 지절을 표상하는 매화, 난, 국화, 대나무 중에서 "국화"를 끌어 왔다는 점, 그리고 간신의 은유인 "도리"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평소 사대부로서 어떠한 기치를 지니고 있었는지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다. 임금에 대한 충성으로서 절개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한 편의 시조로 표현했던 것을 염두에 두고 다음의 작품을 보도록 하자.

곳이 진다 ᄒᆞ고 새들아 슬허 마라
ᄇᆞ람에 흣ᄂᆞ리니 곳의 탓 아니로다
가노라 희짓ᄂᆞᆫ 봄을 ᄉᆡ와 므슴 ᄒᆞ리오.[11]

위의 작품은 실제 을사사화 당시 사건에 연루되어 많은 이들이 화를 당하는 것을 보고 제작한 시이다. 송순은 선비들을 "곳"으로 표현하고, 이 꽃들이 지는 정황을 먼저 노래한다. 그러나 단지 꽃이 져버린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이유가 바람 탓임을 역설한다. 무고한 자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스러지고 마는 사태는 무척이나 안타까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ᄇᆞ람"과 꽃이 흩날려 버린 "봄"은 을사사화 후에 기득권을 잡은 세력 즉, 윤원형을 위시한 집권 세력을 일컫는다.[12]

---

10) 박을수, 『한국시조대사전』 하, 아세아문화사, 1992, 4423번.

11) 박을수, 『한국시조대사전』 상, 아세아문화사, 1992, 286번.

12) "甲辰冬 遭內艱廬墓 其翌年 乃明廟乙巳也 文定垂簾 元衡益張 多殺耆舊善類 與謀者盡策僞勳 公雖在苫堊 未嘗不悲憤也 及丁未禫闋 每歎傷諸賢 作歌曰 有鳥嘵嘵 傷彼落花 春風無情 悲惜奈何" (趙鐘永, <右參贊企村宋公諡狀>, 「諡狀」, 『俛仰

송순의 관직 생활은 비교적 평탄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난관이 없었다고 해서 그가 인식한 현실 역시 안온한 것이었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당시는 사화가 빈번하게 발생한 시기였다는 점, 그리고 송순 역시 사림 중 하나였던 점을 염두에 둘 때 수차례에 걸쳐 낙향하기를 청했던 것은 그의 현실 인식이 결코 안온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이상의 사회성이 짙은 시들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에게 정치 현실이란 썩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그에게 현실이란 마냥 달가운 게 아니었다. 정쟁의 소용돌이에 직접적으로 휩쓸린 것은 아니지만, 그에게 정쟁의 현실이란 일종의 카오스 상태로 보였을 게 틀림없다. 반면 그에게 고향(자연)은 정쟁의 현실을 초월해서 아름다움과 참된 것이 오롯이 유지되고 보전되는 코스모스와 같은 이상적인 공간으로 현현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송순이 자연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면앙정삼언가(俛仰亭三言歌)>를 살펴야 한다. 그 뒤의 <면앙정단가(俛仰亭短歌)>가 <면앙정삼언가>의 시상을 이으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되었고, 가사 <면앙정가>로 더욱 확대되어 완성되었다고 했을 때, <면앙정삼언가>는 송순 자신의 삶에 대해 갖는 근원적인 이상과 의미를 응축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13]

굽어보니 땅이요
우러르니 하늘이라
그 사이 정자 있어

集』4)

13) 김성기, 「송순의 면앙정삼언가 연구」, 『남명학연구』13,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2, p.275.

흥취가 호연하다
풍월을 불러들이고
산천을 둘러놓고
청려장에 의지하며
백 년을 누리리라[14]

위의 시를 지배하고 있는 시상은 『맹자』의 "우러러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굽어보아 인간에게 부끄럽지 않다"[15]는 구절로부터 비롯된다. 이러한 시상은 자연과 합일을 이루어 그 속에서 평생을 살고자 하는 그의 바람과 맞물려 있다.

주지하듯이 송순은 16세기 담양에서 누정문화를 일으킨 중심적인 인물로 그의 누정 면앙정을 소재로 일찍이 많은 시가들을 창작한 바 있다. 누정을 중심으로 형성된 시단의 조건은 출입하는 시인들의 뛰어난 자질도 중요하지만 누정을 중심으로 펼쳐진 수려한 경관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16] 면앙정은 담양의 중심 누정으로서 시단을 형성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면앙정은 많은 이들로부터 풍광의 아름다움을 인정받은 곳이었다. 물론 이곳이 지니는 아름다움은 비단 겉모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세속과 다른', 그래서 '머물고 싶은' 곳이라는 정신적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공간 안에서 하늘과 땅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겠다는 뜻을 세웠다는 것은 세속과는 구별되는 삶의 이상을 지키겠다는 의미와도 상통하는 것이다.

---

14) "俛有地 仰有天 亭其中 興浩然 招風月 挹山川 扶藜杖 送百年" (宋純, <俛仰亭歌三言>, 「詩」, 『俛仰集』 3), 번역은 김신중, 같은 책, p.17.

15) "仰不愧於天 俯不怍於人"(「盡心」, 『孟子』)

16) 김성기, 「송순의 면앙정단가 연구」, 『한국고시가문화연구』1, 한국고시가문화학회, 1993, p.6.

코스모스란 질서이다. 이해 가능하고 이치에 맞는 것이기에 선하고 아름답다. 반면 불규칙하고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선하지도, 아름답지도 않다. 이는 혼돈이고 카오스이다. 이러한 개념 위에서 사림 중 한 사람이었던 송순의 자연 인식은 펼쳐진다. 사림의 강호예찬의 기본 전제가 결국 성리학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는 점, 아울러 강호를 세속과 대비되는 세계로 극명하게 인식하고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강호 인식의 전범을 보여 주었다는 점[17]에서 알 수 있듯이 송순의 자연은 가닿아야 할 이상으로서 코스모스였다고 할 것이다.

이는 <면앙정가>가 선산부사를 제수 받고 담양에 거주하고 있던 무렵 지어졌다는[18] 점을 고려하면 이해가 쉽다. 송순은 1550년에 사론(邪論)을 편다는 논란에 휩싸이고 그 여파로 평안도 순천에서 1년 정도 유배생활을 했다. 그 후 다시 수원으로 옮겨 지내다가 11월에 유배에서 풀려나게 된다.[19] 해배되어 담양으로 돌아온 송순은 1552년에 면앙정을 중즙(重葺)하였다. 이어 1553년 선산부사로 나갔다가 1555년에 담양으로 돌아온다. <면앙정가>가 이 시기부터 전주부윤으로 출사하게 되는 1558년 사이에 제작[20]된 것으로 본다면 유배 생활과 관직생활을 번갈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라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에, 자연은 더욱 그의 이상향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

17) 김신중, 같은 책, p.24.

18) 이상원, 「송순의 면앙정 구축과 <면앙정가> 창작 시기」, 『한국고시가문화연구』35, 한국고시가문화학회, 2015, p.263.

19) 『명종실록』 참조.

20) 이상원, 같은 논문, pp.264-273.

Ⅲ. 〈면앙정가〉와 토포필리아

본고의 궁극적인 목적은 <면앙정가>에서 장소성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이는 작품과 작품의 배경이 된 실제 공간과의 대조 작업을 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대신 배경이 된 공간이 장소화되며 장소성이 제시되는 과정에서 작가의 의식은 과연 어떻게 작용하였는가 혹은, 그 과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를 해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장소가 경험에 근거한다는 기본 전제 아래에서 장소는 시간과 무관하지 않다. 경험들은 반드시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성과 묶여져야 하기에 시간은 장소 경험의 일부이다. 곧 장소는 시간에 독립적일 수 없다.[21] 공간은, 그리고 우리는 항상 현재라는 시간성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면앙정가>를 직접 살펴보면서 담양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장소화 되었는지, 그리고 공간이 장소로서 존재하게 하는 시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1. 공간의 장소화, 구상(具象)

송순은 1533년(중종 28), 김안로의 세력이 횡포를 부리던 정계를 벗어나 담양에 지내면서 제월리 마항마을의 제월봉에 면앙정을 세웠다. 그리고 관직에서 물러나면서부터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14년 간 이곳에서 머물면서 생을 보냈다. 물론 담양은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면서 동시에 정계에서 잠시 멀어졌던 기간, 틈틈이 내려와 지내던 곳이기도 하다. 즉 담양은 그에게 있어서 '머무르는' 곳이었다.

머무름, 즉 거주의 문제는 인간 존재의 삶과 경험의 영역에 해당하는 생활 세계의 문제이다. 다시 말하자면 거주는 생활의 문제이고 그것은 필연

21)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pp.84-85.

적으로 장소와 연관된다는 말이다.[22] 나카노 하지무(中野肇)가 언급한 바대로 장소가 경험주체에게 어떤 의미로 한정되어 나타난다면,[23] 담양이라는 공간에서 오랜 시간동안 다양한 경험을 했던 송순에게 그곳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장소로 부상한다. 그중에서도 면앙정은 그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던 장소로서, 관련 시가 작품이 부지기수이다.

<면앙정가>에서 그는 면앙정의 외관이라든가 또는 그것이 세워지게 된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다양하고 화려한 묘사와 표현법을 동원해서 누정과 그 주변의 경관을 시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시를 접하는 이로 하여금 감흥을 통해 그 이유와 배경 등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래 인용문은 <면앙정가>의 1~18구인데,[24] 면앙정이 '위치'하고 있는 곳의 산세(山勢)와 지형을 소상히 밝히고 있다.

无等山	흔활기뫼히	동다히로	버더이셔
멀니	쎄쳐와	霽月峯의	되여거늘
無邊	大野의	므슴	짐쟉ᄒᆞ노라
일곱구비	흘머움쳐	므득므득	버러ᄂᆞᆺᄃᆞᆺ
가온대	구비ᄂᆞᆫ	굼긔든	늘근뇡이
선즘을	ᄀᆞᆺ씨야	머리ᄅᆞᆯ	안쳐시니
너ᄅᆞ바희	우히		
松竹을	헤혀고	亭子ᄅᆞᆯ	안쳐시니
구름탄	청학이	千里를	가리라
두ᄂᆞ릭	버렷ᄂᆞᆫᄃᆞᆺ		

22) 노용무, 「백석 시와 토포필리아」, 『국어문학』56, 국어문학회, 2014, p.237.
23) 나카노 하지무, 최재석 역, 『공간과 인간』, 국제, 1999, p.44.
24) 이하 원문은 『俛仰亭歌』(한국가사문학관 소장) 참조.

면앙정이 자리한 제월봉은 무등산에서 동쪽으로 뻗어 나온 산줄기이다. 넓게 펼쳐진 들에는 일곱 굽이 한데 뭉쳐 우뚝우뚝 펼쳐 놓은 듯한 굽이진 능선들이 있다. 면앙정은 이 중 늙은 용이 선잠에서 깨어나 머리를 얹어 놓은 것처럼 생긴 널찍한 바위 위에 세워져 있다. 이는 고봉 기대승(高峰 奇大升, 1527~1572)이 "제월봉의 산자락이 건방(乾方)을 향하여 조금 아래로 내려가다가 갑자기 높이 솟아서 산세가 마치 용이 머리를 들고 있는 듯하니, 정자는 바로 그 위에 지어져 있다"[25]는 언급이나, "거북이가 고개를 쳐든 듯"[26]하다고 표현한 내용과 일치한다. 곧 면앙정은 산의 형상이 약간 꺼졌다가 다시 올라간 모습을 한 곳[27]에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그 위치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면앙정은 높은 곳에 세워져 "장송(長松)과 무성한 숲이 영롱하게 서로 어우러져 있어 인간 세상과 서로 접하지 않으므로 아득하여 마치 별천지와 같다"[28]고 말 할 수 있다. 이러한 높이의 변화는 면앙정이 마치 비상하는 듯한 느낌을 줬을 것이고 구름을 탄 푸른 학이 천 리를 날기 위해 날개를 펼친 모습이라는 표현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玉泉山	龍泉山	ᄂᆞ린	믈희
亭子압	너븐들히	兀兀히	펴진드시
넙써든	기노라	프르거든	희지마니
雙龍이	뒤트ᄂᆞᆫᄃᆞᆺ	긴깁을	ᄎᆡ폇ᄂᆞᆫᄃᆞᆺ

25) "峯支向乾方 稍迤而遽隆 勢如龍首之矯亭正直其上" (奇大升, <俛仰亭記>, 『高峰集』 2), 이하 번역은 한국고전종합DB(한국고전번역원) 참조.

26) "勢如龍垂龜昻" (기대승, 같은 글)

27) 문영숙・김용기, 「『면앙집』 분석을 통한 면앙정 경관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20, 한국정원학회, 2002, p.7.

28) "長松茂樹 惹瓏以交加 與人煙不相接 迥然若異境焉" (기대승, 같은 글)

어드러로 가노라 므슴일 빅얏바
닷는듯 ᄯᆞ로는듯 밤ᄂᆞᆺ즈로 흐르는듯
므조친 沙汀은 눈ᄀᆞᆺ치 펴졋거든
어즈러온 기럭기는 므스거슬 어르노라
안즈락 ᄂᆞ리락 므드락 흣트락
蘆花을 ᄉᆞ이두고 우러곰 좃니는뇨
너브길 밧기요 긴하ᄂᆞᆯ 아ᄅᆡ
두르고 ᄉᆞᄏᆞᆫ거슨
모힌가 屛風인가 그림가 아닌가
노픈듯 즌듯 근는듯 닛는듯
숨거니 뵈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즈러온 가온ᄃᆡ 일홈난 양ᄒᆞ야
하ᄂᆞᆯ도 젓치아녀 웃독이 셧는거시
秋月山 머리짓고
龍歸山 鳳旋山 佛臺山 漁灯山
湧珍山 錦城山이 虛空의 버러거든
遠近 蒼崖의 머믄것도 하도할샤

이상은 19~58구의 내용으로 면앙정에서 바라본 승경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다. 시선은 점차 근경에서 원경으로 옮겨간다. 면앙정에서 내려다보이는 넓은 들에는 옥천산과 용천산에서 내린 물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 비록 지금은 그 모습을 찾을 수 없으나 당시에는 마치 쌍룡이 몸을 뒤트는 듯하고 긴 비단을 펼쳐 놓은 듯이 밤낮으로 흐르는 모양이 아름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어 물가의 모래밭은 눈같이 펼쳐진 듯하고 이를 뒤로하여 갈대꽃 사이를 날아다니는 기러기의 모습을 이야기 한다.

다시 고개를 들어 시선을 멀리하니, 넓은 길 밖, 긴 하늘 아래 둘려 있어 산인지 병풍인지 알 수가 없다. 추월산을 머리로 삼아 여러 산들이 펼쳐져

있는 것인데, 이는 정자 앞으로 넓게 펼쳐진 들을 에워싸는 형국이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산세는 “인간은 남들에게 들키지 않고 바깥을 내다볼 수 있는 곳을 선호하도록 진화하였다”는 제이 애플턴(Jay Appleton)의 ‘조망과 은신 이론’을 연상케 한다.[29] 곧 면앙정을 창건할 때에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곳을 택했을 뿐만 아니라, 송순의 코스모스를 완성시켜줄 만한 위치가 고려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송순이 면앙정이라는 공간을 장소화 시키는 것은 그 위치에 자신의 이념을 투사시켜 반영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작품에서 산세와 지형을 통한 위치를 드러냄으로 표현되었던 것이다.

또한, 송순은 이러한 승경을 이야기하며 끊임없이 구체적 지명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고유명이 환기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자연경관을 노래한 제영의 앞부분에 제시된 구체적인 지명들도 그것 나름의 의미를 갖”[30]는다는 식의 지적으로는 부족하다. 일련의 과정은 구체적 지명을 제시함으로써 작품의 공간이 상상의 공간이 아니라 작자가 실제로 생활하였던 곳임을 담보해준다. 즉, 화자의 경험을 수반시키며 그 구체성을 부여하는 작업인 것이다. 작품을 접하는 이는 자칫 면앙정 자체가 차지하는 일대만을 장소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조망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실재하는 풍광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 그 범위를 넓혀 주며 범위에 대한 인식을 재구하여 준다.

구체적 지명으로는, “무등산”, “제월봉”, “추월산” 등을 비롯한 10여 차례에 걸쳐 등장하고 있는 산 이름들이 있다. 또한 구체적 지명은 아니지만 면앙정 주변의 형세를 이야기하면서 담양이라는 장소를 실체화 시키는 용

29) 진경환, 「누정가사의 공간과 풍경 - <면앙정가>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38, 우리어문학회, 2010, pp.120-121.

30) 박연호, 「문화코드 읽기와 문학교육」, 『문학교육학』22, 한국문학교육학회, 2007, p.71.

어도 역시 11여 개가 등장하고 있다. 무등산은, <면앙정가>를 <무등곡(無等曲)>이라고 불리게 할 만큼, 그리고 담양이라는 공간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고유 지명이다. 이어 무등산에서 뻗어 나와 면앙정이 우뚝 선 제월봉과 그곳을 둘러싸고 있는 추월산 등은 좁게는 7.5km에서 넓게는 34km의 반경 내에[31] 위치하면서 장소 범위를 확대 및 재설정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역시 담양의 넓은 들인 "무변대야", "정자 압 너븐 들", "너븐 길" 등과 산세의 절경을 그려주는 "천암 만학", "솔 아릐 구븐 길", "백척 난간" 등은 면앙정에서 조망할 수 있는 모습이다. 이는 면앙정이라는 장소가 향유하는 넓은 의미의 장소를 형상화 시킨 것이다.

이렇게 고유 지명과 주변 풍광을 표현한 용어들은 작품 안의 장소를 구체적으로 제한함과 동시에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 화자는 면앙정이라는 대상을 의미화 시키고 있음이다. 즉 구체적 지명을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이미 존재하던 혹은 이미 경험한 대상을 이야기 하는 것이라는 의식을 전제한 채로 장소화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2. 장소의 지속, 순환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인들은 자연이 순환적으로 움직인다고 믿었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현대인들도 이런 반복적인 국면을 인식하고 있다. 다만, 그것은 고대인들의 다시 되풀이하여 돌아옴이 아니라 일정한 방향으로의 흐름일 뿐이다.[32] 여기서 살피고자 하는 것은 <면앙정가>에 드러나는 시간적 요소이다. 장소성이라는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시간이, 작품 속에 어떻게 드러나며 어떠한 역할을 하

31) 진경환, 같은 논문, p.119.
32) 이-푸 투안, 이옥진 역, 『토포필리아』, 에코리브르, 2011, p.225.

고 있는지 살펴보자.

<면앙정가>를 지배하는 시간적 요소는 '사계의 흐름'이다. 사계절의 흐름에 따라 면앙정 주위 모습을 그림으로써 면앙정이라는 장소는 인지되고 통합된다. 아래는 <면앙정가> 중 사시가경을 나타낸 59~99구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흰구름 브흰煙霞 프르니는 山嵐이라
千巖 萬壑을 제집을 삼아두고
나명셩 들명셩 일히도 구는지고
오르거니 ᄂᆞ리거니
長空의 써나거니 廣野로 거너가니
프르락 불그락 여트락 디트락
斜陽과 서거지어 細雨조ᄎᆞ 쑤리는다
藍輿를 빅야ᄐᆞ고 솔아ᄅᆡ 구븐길노
오며가며 ᄒᆞ는적의
綠楊의 우는黃鶯 嬌態겨워 ᄒᆞ는괴야
나모새 ᄌᆞᄌᆞ지어 封陰이 얼린적의
百尺 欄干의 긴조으름 내여펴니
水面 凉風야이 긋칠줄 모르는가
즌서리 빠진후의 산빗치 금슈로다
黃雲은 ᄯᅩ엇디 萬頃의 펴거긔요
漁笛도 흥을계워 ᄃᆞᆯᄅᆞᄯᅪ 브니는다
草木 다진후의 江山이 ᄆᆡ몰커ᄂᆞᆯ
造物이 헌ᄉᆞᄒᆞ야 氷雪로 ᄭᅮ며내니
瓊宮 瑤臺와 玉海 銀山이
眼底의 버러셰라
乾坤도 가옴열샤 간대마다 경이로다

59구에서 73구는 봄의 경치를 보여주고 있다. 흰 구름이 깔린 고요한 산수의 경치 위에서 아지랑이가 일렁이고 석양에 지는 해와 섞여 이슬비마저 흩뿌린다. 아지랑이로 찾아오는 자연의 봄은 화자의 코스모스인 장소를 설레게 만들고 보슬보슬 내리는 봄비는 그를 촉촉하게 적셨을 것이다. 이어 74구부터 화자는 남여를 타고 녹음이 짙어진 소나무 아래를 지난다. 지루한 더위에 몰려오는 졸음은 백 척 난간에 기대어 몰아내고 간간히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에 여름을 만끽한다. 85구에서 시작하여 90구에서 맺는 가을의 풍경은, 서리가 걷힌 후 산 빛이 비단과 같다는 표현으로 시작된다. 단풍으로 물든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또한 앞에서 등장하였던 발아래 펼쳐진 넓은 들에서 화자는 금빛으로 흔들리는 곡식들을 바라본다. 그리고 가을의 커다란 달과 피리로 흥취를 돋고 있다. 이후 나뭇잎이 다 진 모습에 황량한 마음을 가누지 못하다가 곧 얼음과 눈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경관에 "경궁요대"와 "옥해은산"으로 비유하며 감탄한다.

시가 작품에서 사계의 제시는 순환적 의식 세계의 반영이다. 순환적 구조는, 순환이란 말에 이미 그 뜻이 내포되어 있듯이, 결코 끝나지 않는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시간을 통해서 화자는 자신의 고유한 장소가 유지될 것을 염원한다. "개인이나 문화에 의해 정의되는 장소들은 그 위치・활동・건물들이 의미를 가지고 또 잃어버리면서 성장 번영하고 쇠퇴"[33]한다. 이 말에서 전제하는 시간의 흐름은 '일정한 방향'으로의 그것이다. 때문에 작품에서 이야기하는 순환적 시간 관념과는 다르다. 따라서 <면앙정가>에서 노래된 사계의 순환 개념은 시간이 흘러 장소가 상실되어 버릴 것을 염려한 일종의 염원이라 하겠다. 과거, 특히 사시가를 향유하였던 작가들의 성향이 "사시순응관을 바탕으로 성립되어 사시순에 따른 순차적 순환

33)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같은 책, p.82.

성을 가진 시상 구조를 통해 유한한 삶 속에서 무한을 추구"[34]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화자 역시 이를 바라고 있었고 그러한 열망이 사시의 순환으로 작품에 구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송순에게 면앙정은 완벽한 장소이다. 이는 개인의 시간을 방해 받지 않는 장소라는 전제 하에, 특별한 장소 혹은 특별한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의미하는 '안전한 공간'과도 상통한다.[35] 시에서 알 수 있듯이 면앙정은 높은 곳에 위치하며 주변을 조망한다. 자연을 제외한 모든 것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 지리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면앙정은 외부의 카오스와는 차단된 완벽한 공간으로서, 오롯이 화자의 이상적 시간을 담보하는 장소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소는 순환적 시간을 만나 오랜 세월이 지나 닥쳐올 변화 속에서도 특별한 장소로서 지속될 수 있게 된다.

Ⅳ. 장소의 경계와 의미: 담양과 면앙정

주지하다시피 담양은 송순의 고향이다. 또한 관직 생활이나 유배 생활을 하지 않을 때에 지냈던 곳이자 수차례에 걸쳐 돌아가고자 했던 곳이기도 하다. 그런 그가 담양에 세운 누정이 면앙정이다.

누정이란, 『표준대국어사전』에 따르면 누각과 정자를 아우르는 말로서 경치가 좋은 곳에 놀거나 쉬기 위하여 지은 집이다. 다만 집 위에 활연히 툭 틔게 지은 것[36]이라는 언급과 사방의 경관을 직접 향유할 수 있는 건축

34) 김신중, 같은 논문, p.56.
35) 이-푸 투안, 구동회・심승희 역, 같은 책, p.194.
36) "構屋於屋謂之樓 作豁然虛敞者謂之亭" (李奎報, <四輪亭記>, 「記」, 『東國李相

양식을 고려해 보았을 때에 누정은 계절이나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주변 경관을 조망하기 위하여 높은 곳에 지은 건축물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누정은 폐쇄적이며 '일상'의 생활이 영위되는 집과는 다르다. 누정이 세워진 목적을 살펴보면 그것은 자명해진다.

누정의 이러한 조건은 조망과 체험을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 여기에 16세기 이후 사대부들의 사정(私亭)을 통한 문화적 활동이 보편화됨으로써 누정가사의 세계 역시 실제 공간을 끌어안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따라서 누정가사의 공간은 누정에서 출발하여 주변의 경승지를 살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즐기는 개인적 소유의 공간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었다.[37] 호남지역에서 누정을 중심으로 한 가단을 형성하는 데 효시의 역할을 해낸 면앙정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조망과 경험이 동시에 일어나는 가사의 전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풍경은 보통 정관(靜觀)의 미학과 유관(遊觀)의 미학으로 나누어 설명된다.[38] 이때 면앙정은 시선으로써 생성된 풍경인 정관에서 시작하여, 풍경을 느끼며 그 안에서 직접 행동하는 유관으로 옮겨가며 둘을 동시에 겸하고 있다.

人間을	써나와도	내몸이	겨를업다
니것도	보려ᄒᆞ고	져것도	드르려고
ᄇᆞ람도	혀려ᄒᆞ고	ᄃᆞᆯ도	마즈려고
ᄇᆞᆷ으란	언제줍고	고기란	언제낙고
柴扉란	뉘다드며	딘곳츠란	뉘쓸려료

國集』23)

37) 권정은, 「누정가사의 공간인식과 미적 체험」, 『한국시가연구』13, 한국시가학회, 2003, p.218.

38) 나카무라 요시오, 강영조 역, 『풍경의 쾌락』, 효형, 2007, p.58.

아츰이	낫보거니	나즈히라	슬흘소냐
오ᄂᆞᆯ리	不足거니	내일리라	有餘ᄒᆞ랴
이뫼히	안ᄌᆞ보고	져뫼히	거러보니
煩勞ᄒᆞᆫ	ᄆᆞᅀᆞᆷ의	ᄇᆞ릴일리	아조업다
쉴ᄉᆞ이	업거든	길히나	젼ᄒᆞ리야
다만ᄒᆞᆫ	靑黎杖이	다믜되여	가노ᄆᆡ라
술리	닉어거니	벗지라	업슬소냐
ᄇᆞᆯᄂᆡ며	ᄐᆞ이며	혀이며	이아며
오가짓	소ᄅᆡ로	醉興을	ᄇᆡ야거니
근심이라	이시며	시름이라	브터시라
누으락	안즈락	구브락	져즈락
을프락	ᄑᆞ람ᄒᆞ락	노혜로	노거니
天地도	넙도넙고	日月	ᄒᆞᆫ가ᄒᆞ다
羲皇을	모을너니	니적이야	긔로리야
神僊이	엇더턴지	이몸이야	긔로고야
江山風月	거ᄂᆞᆯ리고	내百年을	다누리면
岳陽樓	上의	李太白이	사라오다
浩蕩	情懷야	이예셔	더ᄒᆞᆯ소냐

세속을 떠나온 것으로 운을 띄운 후, 자연에서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작품 안에서 제시된 화자의 일상은 무척이나 바빠 한 가지에 집중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에 밤을 주울 시간도, 고기를 낚을 시간도, 사립문을 닫을 시간도, 떨어진 꽃을 쓸어낼 시간도 없다. 자연을 완상하느라 아침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아침에 주어진 시간도 부족한데 저녁이라고 넉넉할 리 없다. 이 산에 앉아 보고 저 산을 걸어 보는데 자연은 아름다워 버릴 게 없다. 쉴

틈 역시 없기 때문에 지팡이만 다 닳아질 뿐이다. 이렇게 자연을 즐기는 풍류생활은 자연 안에서의 자족적인 삶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이와 동시에 송순이 지속적으로 행하였던 많은 행위들은, "장소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재확인함으로써 장소에 대한 애착을 강화"[39]시키는 것이다.

이어 술과 벗이 있어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타며 취흥을 돋운다. 이러한 행위 속에 근심이나 시름은 전혀 보이지 않는 듯하다. 누웠다가 앉았다가 시를 읊었다가 휘파람을 불며 노니는 시간은 최고의 태평성세를 구가했던 희황의 시대를 방불케 하고, 시선(詩仙)으로 일컬어지는 이태백이 즐겼던 흥취의 나날을 연상시킨다.

면앙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원의 삶을 구체적으로 나열함으로써 면앙정은 여가 안에서 흥취를 만끽할 수 있는 장소로 그 기능을 확보하고 있다. 일반 백성들의 지난한 일상과는 사뭇 다른 사대부라는 계층의 여유와, 앞서 이미 구체적인 지명을 통하여 제시된 지역에서의 생활을 제시하며 담양과 면앙정을 동시에 아울러 장소화 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담양과 면앙정에 대하여, 직접 주변으로 나가고 몸소 겪는 행동으로 그 공간에 교감하고 이를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며 그 장소의 일부가 된 듯한 소속감[40]을 느끼고 있다는 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송순 개인에게 있어서나 <면앙정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내고 있는 면앙정은 어떤 의미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인지 질문을 던져본다. 실제 생활이 이루어 졌던 담양이라는 장소 안의 특별한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혹은 면앙정 역시 경험의 실제 공간이었던 점을 염두에 두어 담양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장소로 인지해야 하는지 따위다.[41]

---

39)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같은 책, p.84.
40)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같은 책, pp.127-128.

본고에서 논의하고 있는 <면앙정가>의 장소성은 송순이 이미 면앙정을 세우고 그 곳에서 풍류를 즐기는 다양한 경험이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자연 그대로의 공간과 구분되는 송순이 인식하는 장소가 된 것이다. 그러한 경험들이 <면앙정가>에서 조망과 구체적인 지명 등의 제시로 표현되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장소화된 면앙정을 보여주고 동시에 그에 대한 토포필리아를 지속의 바람으로써 드러내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술은 뒷부분의 체험적 서술로 이어졌고 이로써 면앙정으로 초점화 시켰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지하는 공간의 크기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면앙정은 담양이라는 장소에 속하는 특정한 대상에 불과하게 된다. 그러나 송순의 삶 그리고 <면앙정가>라는 작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 보았을 때에 면앙정은, 담양과는 별개의 장소가 될 수 있다. 이렇듯 면앙정과 담양을 개별적으로 분류해내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 장소의 실제적인 범위가 아니라 그 경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면앙정이라는 장소를 형성하는 범위의 경계를 담양이 둘러싸고 있으며 면앙정이 구성하고 있는 장소의 표피는 담양의 그것과 분리해낼 수 없다는 뜻이다.

담양은 지역으로서 담양 자체로 게니우스 로키(genius loci)[42]를 가지고 있다. 송순은 그러한 곳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식을 반영한 하

---

41) 실제로 가사 작품 안에 구체적인 공간적 배경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장소성을 추출해 내어 논의를 진행시킨 연구들 사이에서조차 그 차이가 보이고 있다. 김성은(「소유정가>의 장소재현과 장소성」, 『어문논총』55, 한국문학언어학회, 2011)은 대구라는 '공간'에 실재했던 '장소'인 소유정을 가사의 형식으로 재현한 작품이라 말하고 있다. 이는 소유정이라는 대상을 장소화 한 것으로 대구를 공간이라고 인식하는 데 그친다. 그리고 김은희(같은 논문)는 담양과 면앙정을 각각의 장소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개별적 장소가 지니는 의미를 파악하여 연관 관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42) "각자의 토지가 갖고 있는 고유한 분위기로, 역사를 배경으로 각자의 장소가 갖고 있는 양상" (나카무라 유지로, 박철은 역, 『토포스』, 그린비, 2012, p.5)

나의 세계(면앙정)를 만들었다. 이렇게 주체의 의식이 반영된 면앙정이라는 장소는 주체로 하여금 다시 어떠한 일체감을 얻게 한다. 여기서 얻어진 일체감은 담양과의 일체를 동시에 담보한다고 할 수 있다. 언급한 대로 사람의 인식과 관념은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담양에서 비롯된 의식으로 만들어진 면앙정은 담양으로부터 뿌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담양이 면앙정을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면앙정을 담양이라는 자연 안에서 보존하고 유지시킴으로써 또 다른 장소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당대의 상황은 자연을 일종의 유토피아적인 코스모스로 의미 짓게 하였다. 이러한 의식이 담양 및 면앙정과 맞물려 장소화 되었고 이러한 장소는 <면앙정가>라는 작품을 제작하게 하였다. 역으로 송순이 <면앙정가> 안에서 그리고자 했던 장소는, 공간을 구체화 시켜 그의 코스모스로써 구현되었다. 그 중심에 면앙정이 있다. 면앙정은 누정의 입지가 보여주는 특징인 높은 곳에서의 '보는 행위'로,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경험의 제시로써 누정의 주변 풍광을, 즉 담양을 코스모스라는 이상적인 장소로 재조직 시켰다. 둘은 유기적인 관계망을 형성하며 서로에게 끊임없이 스며들고 소통하는 존재로서 재조직되어 있는 것이다.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험과, 경험에 수반되는 감정들은 그 공간을 장소화 시킨다. 이에 공간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역은 이로써 장소가 된다. 면앙정은 담양의 장소성을 담보하고 있다. 면앙정을 구체화 하면 할수록 담양 역시 그 지역적 의미가 선명해진다. 이렇게 면앙정과 담양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Ⅴ. 나가며

지금까지 송순의 <면앙정가>에서 읽어낼 수 있는 장소성과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고는 작품을 분석하기에 앞서, 송순이 <면앙정가>에서 노래한 자연이 과연 어떤 인식을 통하여 그려진 대상인지를 살피고자 하였다. 때문에 조선시대 시가 작품들 중 상당수가 자연을 주제로 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당시 작가층을 담당하였던 사림의 사상을 살피는 작업을 거쳤다. 그 결과 성리학적 사유체계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개인이 겪었던 경험에 따라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정쟁이라는 원인 때문에 자연은 결국 이상향, 즉 코스모스가 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송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음을 확인하였다.

작품 분석에 들어가서는 <면앙정가>에서 느껴지는 토포필리아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장소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작품에서 끊임없이 구체적 지명과 장소를 구상(具象)화 시키는 표현들을 검토했다. 이러한 특정한 고유 지명들이 공간에 대해 작가의 경험을 전제하며 장소화 시킨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그 장소화를 지속시키려는 바람이 순환적 시간관념인 사계절의 흐름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점 역시 살폈다.

본고는 장소성에 초점을 맞춘 논의들이 특정 장소가 지니는 일반적인 의미나 의의들을 부여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점을 반성하며 실제 텍스트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직되고 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담양과 면앙정이라는 장소는 유기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면앙정가>와 담양이라는 장소가 형성하는 심미적 자질과 관계망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高峰集』
『東國李相國集』
『孟子』
『俛仰集』
『俛仰亭歌』, 한국가사문학관 소장.
『明宗實錄』
박을수, 『한국시조대사전』상・하, 아세아문화사, 1992.
한국고전종합DB, 한국고전번역원.

2. 논문 및 단행본
고성혜, 「담양가사의 미의식」,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p.23.
권정은, 「누정가사의 공간인식과 미적 체험」, 『한국시가연구』13, 한국시가학회, 2003, p.218.
김성기, 「송순의 면앙정단가 연구」, 『한국고시가문화연구』1, 한국고시가문학회, 1993, p.6.
_____, 「송순의 면앙정삼언가 연구」, 『남명학연구』13,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2, p.275.
김성은, 「<소유정가>의 장소재현과 장소성」, 『어문논총』55, 한국문학언어학회, 2011.
김신중, 「사시가의 강호인식 -16세기 후반 사림파 작품의 두 경우-」, 『호남문화연구』20,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1991, p.56, p.61.
_____, 『은둔의 노래 실존의 미학』, 다지리, 2001, p.17, pp.23-24.
김은희, 「송순 시가의 장소성에 대한 일고찰 -자연시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63, 한민족어문학회, 2013.
노용무, 「백석 시와 토포필리아」, 『국어문학』56, 국어문학회, 2014, p.237.
문영숙・김용기, 「『면앙집』 분석을 통한 면앙정 경관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20, 한국정원학회, 2002, p.7.
박연호, 「문화코드 읽기와 문학교육」, 『문학교육학』22, 한국문학교육학회, 2007, p.71.
이상원, 「송순의 면앙정 구축과 <면앙정가> 창작 시기」, 『한국고시가문화연구』35,

한국고시가문화학회, 2015, pp.263-273.
진경환, 「누정가사의 공간과 풍경 -<면앙정가>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38, 우리어문학회, 2010, pp.119-121.
나카노 하지무, 최재석 역, 『공간과 인간』, 국제, 1999, p.44.
나카무라 요시오, 강영조 역, 『풍경의 쾌락』, 효형, 2007, p.58.
나카무라 유지로, 박철은 역, 『토포스』, 그린비, 2012, p.5.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p.82, pp.84-85, pp.127-128.
이-푸 투안, 구동회・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대윤, 1995, pp.19-20, pp.23-24, p.26, p.194.
이-푸 투안, 이옥진 역, 『토포필리아』, 에코리브르, 2011, p.225.
제프 말파스, 김지혜 역, 『장소와 경험』, 에코리브르, 2014, p.15.

Abstract

Study on Placeness and Significance in Song Soon's <Myeonangjeongga>

Ko, Seong-Hye

This research began from a curiosity about whether the contact point between the places, or place (object) within the place should be individually discussed, considering that the discussions that focused on placeness merely gave general meaning or significances that a certain place has. Here, this research aimed at investigating how the placeness is organized in the actual text by selecting Song Soon's <Myeonangjeongga> as a research object.

First, this research determined that Song Soon's nature is the ideal, that is, cosmos. Based on this, the researcher analyzed the work by focusing on topophilia that is felt in <Myeonangjeongga>. In this process, this research examined the expressions that concretized(具象) concrete name of region and place in order to reveal placeness. Also, investigated the point that the wish to maintain the place was realized through a circular time conception. Lastly, this research discussed organic relational net of the place, Damyang and Myeonangjeong, and esthetic talent and relational net that the work and the place formed.

Key Word : Gasa, Song Soon, <Myeonangjeongga>, Myeonangjeong, Damyang, local literature, placeness

고성혜
소속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전자우편 : charminghye@nate.com

이 논문은 2015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5년 8월 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5년 8월 10일 게재 확정됨.